

1955.03.10. 교지 4호 동산
<東山 校誌 續刊에 寄함>

田鎮成(高校 敎長先生님)

아메리카의 국어교육은 주로 「읽기」와 「말의 기능」의 두 가지로 되어있다는 얘기를 들었다. 「읽기」는 Reading으로 주로 이해력을 기르는 것이요, 「말의 기능」은 Language라고 하는 것인데 「말하기」 「맞춤법」 「쓰기」를 주로 한 表現力을 기르는 것 같다.

그리하여 아메리카에서는 기능보다도 「읽기」에 더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. 그것은 민주사회의 훌륭한 공민을 육성하려는 교육목적에서 민주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글을 읽어 이해하는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. 즉 국어교육에 있어서 언어주의에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.

국어교육에는 두 가지 큰 조류가 있으니 하나는 언어주의요 또 하나는 문예주의이다. 언어주의는 국어교육의 주요 임무를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언어능력을 배워 얻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요, 문예주의는 언어예표로서 문예작품의 감상이나 문예적 창작활동을 통하여 너그럽고 부드러운 인간성을 형성하는 것이 국어교육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.

해방 후 우리 국어교육이 아메리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장래의 높은 문예주의에서 벗어나서 실생활에 필요한 독서력과 작문력에 주력을 기울이게 된 것은 기뻐 마지않는 바이다. 그러나 일본의 문예주의가 우세하던 시대에 학교를 다녀 본 나로서는 「생활의 필요」 혹은 실용적 성격만을 앞세운다는 것은 생활에 부드러움을 준다든가 풍부한 인간성을 기른다는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움에 있어 좀 모자람이 있는 것 같은 감을 가지게 된다.

이런 점에서 나는 학교의 교지(校誌)가 여러 학생에게 문예의 좋은 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데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며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온 것이다.

6·25 전에 순조롭게 발전해 오던 우리 동산 교지가 불행히 동란으로 중단되었다가 다행히 이번 문예부의 필사적(必死的) 노력과 졸업생 제군의 막대한 격려·원조와 선생님들의 협력을 얻어 학교가 복교 후 얼마 되지 않아 새살림을 꾸미는 관계로 지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 난관이 많았음에도 꺾이지 않고 훌륭한 동산 교지의 속간호(續刊號)를 만든 데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바이다. 다만 이것이 단시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위태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으나 졸업생, 재학생, 선생님들이 협력하고 많은 사람의 열정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 같은 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정신적인 경험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. 장차도 귀중한 경험을 살려 꾸준한 협력 있기를 바라며 교지속간을 축하하는 말에 바꾸려 한다.